

31112 서문주

5월12일 일요일 "윤주 아기"

12시, 어제밤 늦게 잔것에 12시 30분쯤 눈을 떴다.

발아래에서 함께 자고 있는 우리집 강아지 히아. 작은 몸을 둥글게 말고 잠을 자고 있었다. 1시 무렵 아자실에 가있는 찬에게 아저 오라는 연락을 받고 주섬주섬 몸을 움직여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다 찬가 배가 아프다며 자신을 집을 갈테니 오지 말고 했다. 다시 들어오는 몸으로 침대에 들어가 누워 핸드폰을 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핸드폰이 울렸다. 아빠였다. 시모를 주러갈테니 전화하면 내려오라는 전화였다. 나는 아빠에게 "잠 나 아자실 좀 대려다주"라고 했고 3시 아빠에게 전화가 와서 밑으로 내려갔다. 시모를 받아들고 집에 올려다놓고 다시 내려가 아빠의 차를 타고 아자실을 향했다. 아자실을 향하던 중 나는 아빠에게 살피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아빠는 코순이 동생 코자라며 나를 놀렸다. 코자는 코끼리였다. 그공게 웃고 떠들며 아자실에 도착했다.

나는 오늘은 집에서 공부한테니 가지말고 별만 기다리라고했다.

급히 학교안을 뛰어 들어가 책을 가방에 넣고 다시 아빠차를 뛰어갔다.

집을 향하던 중, 아빠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숙떡을 줄테니 오는 전화였다. 아빠는 나를 집에 대려다주고 찬집에 갔다가 연락할테니 떡을 반으로 내려오라고 말했다. 그시각이 3시 45분이였다. 집에 들어가 잠시 히아와 놀다가 다시 핸드폰을 하며 아빠를 기다렸다. 4시 15분 아빠에게 연락이와서 히아를 안고 내려갔다. 히아는 아빠를 보자 너무 좋아했다. 잠시 히아와 놀던 아빠 나에게 숙떡을 주고 샤워실로 향했다.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으며 핸드폰 하다가 한끼도 안먹은 것이 생각나 밥을 차려먹었다.

5시. [아빠대가?]라는 예능프로그램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예능이 끝나자 늦은 공부를 시작했다. 10시. 남은 디워치는데 야콧 옷장장리를 하지않아 혼자서 많은 옷을 장리를 해나갔다. 11시 옷장장이 모두 끝나고 졸졸하진 배를 달래려 쿼면을 꺼내먹었다. 11시 40분 히아를 안방에서 베니니 샤워를 시키고 털을 말려주었다. 12시 나브 샤워를 하고 머리 말리고 잠시 핸드폰을 하다가 1시 20분 잠에 들었다. (끝)